

송광사 간행의 『대방광불화엄경소』와 판본의 계통*

A Study on the Systems and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Published in Songgwangsa Temple

오 용 섭 (Oh, Yong-Seob)**

◁ 목 차 ▷

- | | |
|------------|-------------|
| 1. 서 언 | 4.1 송본 |
| 2. 간행과 주역 | 4.2 청계사본 |
| 3. 분담 간행 | 4.3 백양사 복장본 |
| 3.1 보성 개흥사 | 4.4 별본 |
| 3.2 곤양 서봉사 | 5. 결 언 |
| 4. 판본의 계통 | <참고문헌> |

<초 록>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정관(738~839)의 주석을 바탕으로 정원(1011~1088)이 120권으로 엮은 『대방광불화엄경』의 주석서이다.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요청으로 2,900여 목판이 고려 선종 4년(1087)에 수입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이 수입목판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시 간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세종은 이 수입목판을 일본에 사급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에서는 왕실 주도로 세종 26년(1444)에 청계사본이 간행된 후, 15세기 후기에는 백양사 복장본이 간행되었다. 백양사 복장본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판본이다. 이어 16~7세기에는 귀진사, 용복사, 송광사 등의 사찰에서 간행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늦게 간행된 송광사본은 귀진사본의 번각으로만 알려져 왔으나 귀진사본 역시 백양사 복장본 계통이다. 그리고 송광사본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귀진사본과 마찬가지로 인근 사찰과 분담하여 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송광사본의 알려지지 않았던 간행방식 그리고 판본의 계통 등을 살펴 송광사본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要語: 대방광불화엄경소, 화엄경소, 화엄경, 정원, 의천, 각성, 청계사, 백양사, 귀진사, 용복사, 송광사, 개흥사, 서봉사

<ABSTRACT>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consisting of 120 volumes organized by Jing yuán (1011~1088) is an annotation book about the Avatamska Sutra. He added a small supplement to annotation of Ch'eng kuan (738~839). A Goryeo Buddhist monk named Daegak Guksa Uicheon (1055~1101) asked Jing yuán for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during China's Sung Dynasty. Before long, he received about 2,900 wood blocks. There was no need engrave because the wood blocks existed in the country during the Goryeo Dynasty. However King Sejong of the Joseon Dynasty bestowed these 2,900 wood blocks to Japan instead of the Tripitaka Koreana. Since then,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was published by Cheonggyesa Temple, Gwijinsa Temple, Yongboksa Temple and Songgwangsa Temple in Korea from 15th century to 17th century. Besides several books stored in statue of the Buddha in Baekyangsa Temple was published by unknown publisher in the late 15th century. In this paper, I have researched system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ood blocks engraved by Songgwangsa Temple. Through this study, I was able to understand the whole process of engrav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wood blocks published by Songgwangsa Temple.

Key words: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Hwaeomgyeongso, Hwaeomgyeong, Jing yuán, Uicheon, Gakseong, Cheonggyesa, Baekyangsa, Gwijinsa, Yongboksa, Songgwangsa, Gaehungsa, Seobongsa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9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uki@inu.ac.kr)

투고일: 2020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4일

서지학연구, 제84집, 5-29,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4.5>

1. 서 언

순천 송광사에서는 1633년 8월 이전부터 1635년 4월까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대방광불화엄경소』(이하 『화엄경소』로 약칭함) 전권을 간행하게 된다. 당시 이 일의 주도자는 벽암 각성(1575~1660)이었고, 인근지역을 포함한 승려는 물론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들의 참여로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120권이나 되는 많은 불서를 이렇게 단기간에 완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참여인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찰과 판각을 분담한 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분담에 참여한 사찰은 보성의 개흥사와 곤양의 서봉사 등이었다. 이 두 사찰이 刊役을 분담한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된 몇 장의 인본이 현전본에는 적합한 위치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송광사본은 귀진사본을 번각한 사실은 인본이나 현전 목판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귀진사본이나 송광사본의 판본의 계통에 대한 조사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송광사본의 계통은 귀진사본이라는 한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송광사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진사본 이전의 판본에 대해서도 살필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왕자 의천의 요청으로 선종 4년(1087)에 수입된 목판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질의 이 불서를 다시 간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세종 6년(1424)에 해인사 대장경판을 求請하는 일본에게 이 목판을 사급함으로써¹⁾ 국내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세종 26년(1444) 11월에는 왕실이 중심이 되어 송본의 번각을 끝내었으니 이것이 청계사본이다. 이 판본은 송본과 마찬가지로 판심이 없는 권자본을 고려한 전엽 형식이었다. 이러한 판본들은 판식의 특성상 열람과 이용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현전 송본들은 절첩장이나 포배장으로 장책되어 있고, 청계사본 역시 소량의 전본이기는 하나 포배장으로 개량되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후기에 와서는 이전 판본에다 판심을 마련하여 기술적으로 번각하게 된다. 이 사실은 백양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본(이후 백양사 복장본으로 약칭)에서 볼 수 있다. 이 판본이 판심을 마련한 최초의 국내 판본인지 아니면 번각본인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판심이 있는 초기의 『화엄경소』가 발견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백양사 복장본을 독자 판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아무튼 백양사 복장본 이후에 귀진사본이 간행되었으므로 판심을 갖춘 판본은 귀진사본이 최초가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이 되는 셈이다. 귀진사본(1564)이 간행된 뒤 용복사(1631), 송광사(1635) 등에서 차례로 『화엄경소』의 완성을 보았다. 이렇게 거질의 불서를 북부, 중부, 남부지역의 사찰에서 연속적으로 간행한 것은 이 『화엄경소』가 『화엄경』의 經, 疏, 傳을 하나로 합쳐 화엄학

1) 『세종실록』 6년 1월 8일. “上遣護軍尹仁甫, 諭圭籌等, 賜密教大藏經板, 注華嚴經板, 大藏經一部.”

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²⁾을 주는 긴요한 불서였기 때문이다.

송광사본은 귀진사본을 번각하였지만 판심을 갖춘 판본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백양사 복장본의 계통으로 볼 수 있다. 곧 국내 간행의 『화엄경소』는 송본을 祖本으로 하지만 판식으로 볼 때 계통은 백양사 복장본, 귀진사본, 송광사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가장 늦게 간행된 송광사본을 중심으로 간행과 방식 그리고 판본의 계통 등을 살펴 송광사본의 정체성을 밝힐 것이다.³⁾

2. 간행과 주역

2.1 간행

송광사에서는 17세기 전기에 전란에 피해를 입은 『묘법연화경』⁴⁾ 등의 불경과 필요한 불서들을 간행하기 위한 刊役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중에서 권질이 많은 불서는 『화엄경소』와 『십지경론』이었다. 이 2종의 불서 간행을 책임지고 주도한 인물은 국일도대선사 碧巖 覺性이었다. 그는 17세기 초기부터 하동 쌍계사에 수장하기 위해 인근 能仁庵에서 판각하여 옮기는 방식으로 불서들을 간행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송광사에서 『화엄경소』와 『십지경론』을 간행할 때도 처음부터 인근 사찰과의 분담간행을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화엄경소』의 간행방식은 황해도 서흥의 귀진사본의 번각이었고, 이 사실은 현전하는 인본이나 목판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⁵⁾ 『화엄경소』와 함께 간행한 『십지경론』은 星宿寺本⁶⁾이지만 성숙사는 귀진사의 다른 이름이다.⁷⁾ 그러므로 송광사에서는 普雨가 주도하여 간행한 귀진사본 2종을 동시에 중간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2종은 간행에 참여한 인물이나 실무자 그리고 분담 판각방식까지 거의 동일하다.⁸⁾

『화엄경소』는 1633년 8월 이전에 시작하여 1635년 4월에 완성되었는데, 목판 대부분이 현존하는 데다 인출회수도 비교적 많아 전본이 제법 전하는 편이다. 현전하는 목판과 전본을 통해 확인되는

2) 陳景富, “義天入宋求法活動及其弘法業績,” 『天台學研究』 2輯(2000), 39.

3)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4전국사찰목판 일제조사』, 전라남도2(송광사)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5), 68-483, “2,347판이 수장되어 있으며, 결판은 100판정도로 추산된다.”

4) 『妙法蓮華經』 권1말(順天: 松廣寺, 1615). “萬曆十一年癸未(1583)春, 山人崇印, 新刊本板, 流傳, 而丁酉之亂, 爲倭火所燒, 本板半餘, 山人曇玄, 自戊申(1608)秋, 始役重刊, 流傳 … 流通于松廣寺.”

5) 오용섭, “조선시대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 『서지학연구』 제76집(2018. 12), 149.

6) 『十地經論』 권10(瑞興: 星宿寺, 1557). “嘉靖卅六年丁巳(1557)八月日 黃海道瑞興地高德山星宿寺刊板.”

7) 『輿地圖書』 下, 黃海道 瑞興, 寺刹(『한국사료총서』 제20집). “星宿寺, 在高德山. 一名歸眞寺.”

申常顯, 『瑞興誌』(寫本, [1828]), 寺刹. “歸眞寺, 在栗里坊, 高德山府治, 北三十里, 或云本星宿寺.”

8) 『十地經論』 권11(順天: 松廣寺, 1635). “八道都摠攝國一都大禪師 覺性, 大功德主 都大禪師 性玄 … 大化主 李春發, 刻字 善和比丘.”

간행기록은 <표 1>과 같다.

<표 1> 『화엄경소』의 권별 간기⁹⁾

구분	권수	간기	간행연월	근거 ¹⁰⁾
1	10	崇禎八年乙亥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	1635	목판, 인본(대흥사 ¹¹⁾)
2	12	崇禎八年乙亥三月日 全羅道順天府曹溪山松廣寺重刊	1635.3	목판, 인본(대흥사, 동화사)
3	21	崇禎八年乙亥四月日全羅道順天松廣寺開板	1635.4	목판, 인본(대흥사)
4	22(24) ¹²⁾	崇禎七年甲戌四月日從	1634.4	인본(동화사, 동국대)
5	26	曹溪山松廣寺開板		목판, 인본(중앙승가대 ¹³⁾)
6	33	崇禎七年甲戌二月念五日始役四月念六日終	1634.4	목판, 인본(동국대)
7	36	崇禎八年乙亥月日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	1635	인본(동화사, 동국대)
8	44(47) ¹⁴⁾	崇禎七年甲戌(1634)七月日	1634.7	인본(대흥사, 벽송사, 동화사)
9	50	崇禎七年甲戌十二月日全羅道順天松廣寺刊板	1634.12	목판, 인본(동화사)
10	72	崇禎八年乙亥三月 日 全羅道順天府曹溪山松廣寺	1635.3	목판, 인본(대흥사, 중앙승가대)
11	78	崇禎八年乙亥月日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	1635.	목판, 인본(동국대)
12	85	崇禎八年乙亥四月日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	1635.4	목판, 인본(동화사)
13	118	崇禎八年正月日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刊	1635.1	목판, 인본(동화사, 표충사)
14	120	崇禎六年癸酉仲秋日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	1633.8	인본(동화사, 대흥사, 표충사, 직지사, 동국대)

<표 1>에서 보듯이 마지막 120권을 가장 빨리, 그것도 중추일에 판각한 것은 완성을 위한 기원적인 의도로 짐작된다.¹⁵⁾ 그런데 함께 간행한 『십지경론』도 마지막인 10권은 1634년에 판각한 데 비해 2권과 3권은 오히려 그 이듬해인 1635년 4월과 3월에 판각하였다.¹⁶⁾ 이렇게 다권본 불서를 마지막 권부터 반대로 판각한 것은 당시 송광사의 간행방식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9) 오용섭, “조선시대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 『서지학연구』 제76집(2018. 12), 150에서 밝힌 바 있으나 인본과 목판을 거듭 세밀하게 조사하여 수정 보완하였음.

이지관, “한국불교에 있어 화엄경의 위치 - 각판유통을 중심으로 -,” 『불교학보』 제20집(1983. 9), 26-30.

10) 이하 대흥사, 동화사, 중앙승가대, 벽송사, 표충사 소장본은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이용하였음.

11) 대흥사 소장본은 권2의 끝에 “康熙5年(1666) 丙子 季春日 住昇平府 曹溪山 普照菴 附吐并書私記”라는 목서로 보아 1666년 이전 인본(2권1책), 강희 16년(1677) 4월에 인출되어 대흥사의 암자의 하나인 晩日菴에 소장된 인본(3권1책)과 강희 32년(1693) 4월 표지가 없는 인본(3권1책) 등이 산질로 전함.

12) 동화사 소장본은 권22, 동국대도서관 소장본은 권24의 끝에 편성되어 있음.

13) 중앙승가대 소장본은 권미 목서인 “順治十五年戊戌(1658)十一月日造成流傳甲寺以爲萬歲龜鑑”과 같이 효종 9년(1658)의 인본임.

14) 대흥사, 벽송사본은 권44, 동화사본은 권47의 끝에 편성되어 있음.

15) 오용섭, “조선시대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 『서지학연구』 제76집(2018. 12), 151.

16) 『十地經論』(順天: 松廣寺, 1635). “2卷之4: 崇禎八年乙亥(1635)四月日松廣寺開板, 3卷之3: 崇禎八年乙亥(1635)三月日全羅道順天府曹溪山松廣寺刊板, 10卷之12: 甲戌歲(1634)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重刊板.”

전권을 판각하다보니 대본이 되는 귀진사본의 간기나 시주질을 그대로 판각하기도 하였고, 판식 또한 일정하지가 않다. 판각이 끝난 1635년 4월에는 “이 해 4월에 계진이 인출하였다.”¹⁷⁾는 기록과 같이 바로 인출을 마침으로써 간행이 완료되었다.

2.2 주역

송광사본은 일반 사찰본과 마찬가지로 각 권의 권말이나 난외에 시주자나 참여자가 표기되어 있다.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권120의 끝에는 覺性, 熙玉, 性玄, 裊能 등의 주도자와 弘彦, 天浩, 信哲, 道英, 學連, 惠寬 등 여러 방면의 실무자 명단¹⁸⁾이 수록되어 있다.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밝혀져 있으므로,¹⁹⁾ 여기에서는 간행의 주역인 浮休 善修(1543~1615)의 高弟인 작성과 희옥²⁰⁾ 그리고 배능과 흥언 등을 대상으로 살피고자 한다.

작성²¹⁾은 스승인 부휴보다 뛰어나다는 명성을 갖출 정도로 학자들이 존중하였고, 조정에서도 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라는 호와 都摠攝을 除授할 만큼 당대 최고의 승려였다.²²⁾ 찬술로는 『석문상의초』, 『선원도중결의』,²³⁾ 『간화결의』 등이 있다.²⁴⁾ 그는 인조 2년(1624) 남한산성 축성 시에 漢興寺와 國淸寺의 창건을 통한 인부들의 숙식 해결²⁵⁾과 승려들의 축성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국가 방위를 위한 일선에 서기도 하였다.²⁶⁾ 불사로는 전란 등으로 훼손된 화엄사, 송광사, 쌍계사 등을 중창²⁷⁾하는 등 대가람 건축에 앞장섰는데, 활동범위는 건축물이나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17) 하동 청계사 소장본 권2. “崇禎八年(1635)四月 日戒眞印.”

18) 권120말. “前八道都摠攝國一都大禪師覺性校, 前全羅都摠攝融妙都大禪師熙玉, 執事大禪師 性玄, 金城判事 裊能, 大功德主 天浩, 刻字 信哲 …, 鍊板 道英, 供養主 學連 …, 別座 惠寬 ….”

19) 이지관, “한국불교에 있어 화엄경의 위치 - 각관유통을 중심으로 -,” 『불교학보』 제20집(1983. 9), 26-30.
노기춘, “順天 松廣寺 開板佛事に 관한 연구(II) - 壬辰倭亂 有刊記 佛書를 中心으로 -,” 『서지학연구』 제26집(2003), 303-346.

오용섭, “조선시대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 『서지학연구』 제76집(2018. 12), 135-158.

20) 善修, 『浮休堂大師集』 浮休堂集序. “夫浮休之高弟, 覺性熙玉, 早奉教於函丈, 聞其法守其道者.”

21) 處能, 『大覺登階集』 卷2.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

22) 申翊聖, 『有明朝鮮國全羅道全州府松廣寺開創碑銘并序』, 1636. “碧巖, 處浮休之門, 已有出藍之譽, 名覺性. 學者尊師之, 朝廷亦重之,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號, 授都摠攝, 又錫衣鉢云.”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大覺登階集』 卷2), “仁祖大王, 踐祚之明年甲子, 朝廷城南漢山, 徵師爲八方都摠攝. 役訖,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號, 又錫衣.”

23)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大覺登階集』 卷2), “因學者疑爭, 述圖中決疑, 參商禪旨等.”

서수정, “새로 발견한 벽암 작성의 선원도중결의 간행 배경과 그 내용,” 『불교학연구』 제55호(2018. 6), 187-218.

24) 李景奭, 『白軒先生集』 권45. 비, 『智異山碧巖大師浮屠碑銘』, “其所著有禪源集, 圖中決疑一卷, 看話決疑一篇, 釋門喪儀抄一卷.”

25) 유승주, “남한산성의 행궁·객관·사찰건립고,” 『한국사연구』 120호(2003), 267.

26) 인조 17년(1639)에는 적상산사고의 수호 책임까지 맡았음. 『인조실록』 39권 17년 10월 8일. “備局啓請: 修治茂朱縣 赤裳山城, 以本縣及錦山 龍潭 鎮安 長水 雲峯 珍山等七邑, 分屬本城, 略如笠巖舊規, 令僧覺性稱以都摠攝, 恒住城中, 無事則守護, 有事則協守, 上從之.”

27) 이경석, 『백현선생집』 권45. 비, 『지리산벽암대사부도비명』, “諸山衆園, 或剏或修, 如雙谿之東刹, 華嚴之宏制,

않았다. 곧 1651년에 속초 신흥사의 극락전 아미타삼존불상과 지장시왕상 그리고 불화들을 조성할 때도 총책임자의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²⁸⁾ 이와 같이 각성은 불전건축은 물론 불상, 불화의 조성 그리고 불서 간행에도 참여함으로써 불법수호와 승려교육을 주도한 당대 최고의 승려라고 할 수 있다.

불서 간행은 그가 20대 후기 때인 17세기 초기에 지리산 능인암²⁹⁾에서 시작하게 된다. 곧 선조 36년(1603) 겨울에 『선원제전집도서』를 간행할 때 교정³⁰⁾을 맡은 이후 30세 되던 이듬해 봄에는 『고봉화상선요』,³¹⁾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³²⁾ 『대혜보각선사서』³³⁾ 등의 교정을 보았다. 또 그 해 여름에 『묘법연화경』을 간행할 때는 교정뿐 아니라 직접 각수로도 참여하였으며,³⁴⁾ 가을에는 『원동성불론』과 『간화결의론』을 합간하면서 시주 겸 교정³⁵⁾으로 참여하는 등 젊은 시절부터 교정자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광해군 3년(1611)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을 간행할 때도 참여하였다.³⁶⁾ 이렇게 각성은 17세기 초기부터 능인암에서 불서를 간행하는 사업에 교정자의 역할뿐 아니라 각수로서도 직접 참여하였던 것이다.³⁷⁾

이후에도 각성은 계속 인근의 사찰에 머물렀다. 특히 광해군 10년(1618)에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신흥사³⁸⁾를 새로 건축하였는데, 당시 그를 따르는 문도들이 수 십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³⁹⁾ 『화엄경소』

松廣之伽藍，乃其大者，餘可略也。”

28) 文明大, “벽암각성의 조형 활동과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상과 그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 45호(2015), 14, 27.

29) 현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에 있었던 사찰.

30) 『禪源諸詮集都序』 권상 말. “萬曆三十一年癸卯(1603)冬智異山能仁庵開刊移鎮雙溪寺,” “覺性校.”

31) 『高峰和尚禪要』 권말. “萬曆三十二年甲辰(1604)春能仁庵開刊移鎮于雙溪寺,” “校正 覺性.”

32)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권말. “萬曆三十二年甲辰(1604)春智異山能仁庵開刊移鎮于雙溪寺,” “覺性校.”

33) 『大慧普覺禪師書』 권말. “萬曆三十二年甲辰(1604)四月能仁庵開刊移鎮雙溪,” “校覺性.”

34) 『妙法蓮華經』 권7말. “萬曆三十二年甲辰(1604)夏能仁庵開刊移鎮于雙溪寺,” “校正 覺性, 刻手 … 覺性 ….”

35) 『圓頓成佛論·看話決疑論』(합각) 권말. “萬曆三十二年甲辰(1604)秋能仁庵開刊移鎮雙溪寺,” “兼施主覺性校.”

36)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권6말. “萬曆三十有九年辛亥(1611)之夏智異山能仁庵刊移鎮于雙溪焉.” ; 권5말. “大禪師 … 覺性.”

37) 하동 쌍계사 소장 목판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찰문화재 9: 2016 전국사찰목판 일제조사』(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7)가 참고가 됨.

이 목판들은 하동의 쌍계사 화엄전에 수장되어 있으며, 쌍계사의 다른 목판과 함께 총 36종 1,743매(목판)가 『하동 쌍계사 불경 목판(河東 雙溪寺 佛經 木板)』이라는 명칭으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5호(1979년 12월 29일)로 지정되어 있다. 얼마 전 불교문화재연구소 조사를 바탕으로 이 목판들을 살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능인암에서 간행하여 쌍계사로 옮긴 『禪源諸詮集都序』는 보각판을 포함하여 22판 80장(1면에 2장 새김, 완판), 『高峰和尚禪要』는 14판 53장(1면에 2장 새김, 완판),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완판 23판 75장(1면에 2장 새김, 완판), 『妙法蓮華經』은 보각판을 포함한 총 112판(대부분 1면에 2장 새김, 완판), 『圓頓成佛論·看話決疑論』(합각)은 11판 36장(1면에 1-2장 새김, 완판),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보각판을 포함한 335판 666장(1면에 1장 새김, 완판), 『禪源諸詮集都序』는 보각판을 포함하여 22판 80장(1면에 2장 새김, 완판)이 전하는 등 능인암 간행의 목판들은 거의 온전하게 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 『禪源諸詮集都序』, 『圓頓成佛論·看話決疑論』(합각),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등은 보물 승격이 예정되어 있다.

38) 『大覺登階集』 권2.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 “戊午秌, 遷神興, 衆盈七百.”

39) 梁慶遇, 『霽湖集』, 권11(기행록), 「歷盡沿海郡縣 仍入頭流 賞雙溪神興紀行錄」, “早發將向神興洞, 老僧追至石

의 완성을 보게 된 1635년에도 泰仁의 龍藏寺에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⁴⁰⁾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⁴¹⁾ 『불설광본대세경』⁴²⁾ 등을 간행함에 참여하였다. 또한 『화엄경소』 간행에 함께 참여하였던 곤양의 서봉사는 이후 불서들을 간행하는데, 각성은 입적하기 1년 전인 효종 10년(1659)까지도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⁴³⁾ 『제반문』⁴⁴⁾ 등을 간행할 때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각성은 젊은 시절부터 입적 때까지 끊임없이 불서 간행을 지속하였는데, 그중에서 『화엄경소』가 가장 방대한 불서였다.

이에 비해 각성과 동학인 熙玉은 『화엄경소』 간행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간행 도중에 입적하였기 때문이다. 희옥은 송광사에서 광해군 1년(1609)에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을 간행할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시주자로 참여한 사실이 보인다.⁴⁵⁾ 이후 『화엄경소』 간행을 시작하던 1633년 8월에는 “전라도총섭도대선사”의 직에서 물러났으면서도 함께 참여하였다.⁴⁶⁾ 그러나 1634년 12월에 간행된 권50의 참여자 명단에 “全羅判事 熙玉尊靈”⁴⁷⁾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입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635년 3월에 간행된 『십지경론』⁴⁸⁾에는 “全羅都摠攝融妙大禪師 熙玉”과 같이 희옥이 생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십지경론』은 희옥이 생존하던 1634년부터 판각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에 완성⁴⁹⁾을 본 것이므로 이전에 마련한 판하본을 그대로 새긴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함께 금성판사를 맡았던 裴能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그가 간행사업에 참여한 사실은 세 곳에 남아 있다.⁵⁰⁾ 마지막 120권의 간행시기인 인조 11년(1633) 8월에 금성판사라는 승직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권58과 인조 13년(1635)에 간행된 권78의 간행기록에는 각각 “전 금성판사 배능”, “전 金城摠攝 裴能”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배능은 『화엄경소』가 완성된 인조 13년(1635) 4월

門告別…釋覺性出候我行。緇巾稻柄方○水○，見余至合掌一笑，勞苦如舊…遂相携行一里許至于寺，寺亦亂後新創…環擁覺師者數十，具餘在廡下庭除者，十百爲群，皆其門徒也。”

40)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崇禎八年乙亥(1635)四月日 全羅道泰仁地雲住山龍藏寺開刊.”，“大禪師 太能，戒熏，太浩，海眼，覺性.”

41)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崇禎八年(1635)乙亥八月日 全羅道泰仁縣雲住山龍藏寺開刊.”，“大德太能，大德戒熏，大德太浩，大德覺性.”

42) 『佛說廣本大歲經』，“崇禎八年乙亥(1635)九月日全羅道泰仁縣雲住山龍藏寺開板.”，“大禪師太能，大禪師戒熏，大禪師太浩，大禪師覺性.”

43)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昆陽：栖鳳寺，1659). “曹溪宗大師 覺性.”

44) 『諸般文』(昆陽：栖鳳寺，1659). “一國大師 覺性.”

45)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順天：松廣寺：[1609])，권1 제1장 왼쪽 난외하단. “熙玉伏爲亡母朴氏.”

46) 『大方廣佛華嚴經疏』 권120말(1633). “前 全羅道摠攝融妙都大禪師熙玉.”

47) 『大方廣佛華嚴經疏』 권50말. “華嚴宗山中太德 聖賢，八道都摠攝 覺聖，全羅判事 熙玉尊靈，華嚴經幹善化主敬嘗.”

48) 『十地經論』 권3말. “判禪宗事兼八道都摠攝國一都大禪師 覺性，大功德主都大執事大禪師 性玄，全羅都摠攝融妙大禪師 熙玉，忠清都摠攝 大禪師 太能，大禪師 太湖，大禪師 應默，校正 大禪師 性安，華嚴都大化士 法欽. 崇禎八年乙亥(1635)三月日全羅道順天府曹溪山松廣寺刊板.”

49) 『十地經論』 권12말(순천：송광사，1634). “甲戌歲(1634)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重刊板.”

50) 권58말, “前金城判事裴能.” 권78말, “前金城摠攝裴能.” 권120말, “金城判事裴能.”

이전에 금성판사직에서 퇴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배능은 송광사 海淸堂 등 상량이 있던 인조 18년 경진(1640) 3월 27일에도 여전히 “전 금성판사”라는 직책⁵¹⁾에 그쳤으나 『화엄경소』를 간행한 뒤에는 송광사 주지를 맡게 된다. 그런데 인조 26년(1648) 4월에 송광사에서 간행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에는 “전 금성판사로 본사 주지였던 배능의 닛을 기린다.”⁵²⁾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배능은 1640년 4월 이후에 주지를 맡았다가 1648년 4월 이전에 입적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송광사의 『주지계보』에는 인조 18년경에 주지를 역임한 松溪 性玄에 이어 인조 25년(1647)경에 주지를 역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⁵³⁾ 이렇게 배능은 금성판사라는 승직에 있을 때 『화엄경소』 간행에 조력하다가 간행된 지 10여년 후에는 송광사 주지를 맡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주지 임용방식은 16세기 중기 귀진사에서 『화엄경소』 간행에 참여한 法達이 도중에 持任을 맡은 사례와 함께 조선 중기 지방 사찰의 주지 임명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한편 실무자인 弘彦의 조력도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곧 『화엄경소』 권2, 59, 64, 65, 78, 104, 113 등에는 그의 각수 역할이 남아 있고, 권64, 65, 104, 113에서는 교정⁵⁴⁾까지 하였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그의 판각과 교정활동에 대한 용어는 刊字, 刻手, 校正刻, 正刻, 校刻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실 홍언은 『화엄경소』를 판각하기 이전부터 송광사에서 『운수단가사』(1607),⁵⁵⁾ 『묘법연화경』(1615),⁵⁶⁾ 『선가귀감』(1618),⁵⁷⁾ 『불설예수시왕생칠경』(1618)⁵⁸⁾을 간행할 때 각수로 참여하였고, 『화엄경소』를 간행한 이후인 1639년에는 곤양의 서봉사에서 『묘법연화경』⁵⁹⁾을 간행할 때도 각수로 참여한 판각전문 승려였다.

이외에도 간행을 위해 보시한 많은 실무자와 시주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화주 天沽(天浩)를 비롯하여 昌山君 成潑, 정무래, 강태수, 최기남, 최개손, 박연손, 이순재 등도 도움을 많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권112의 난외 아래쪽에는 “唐僧○○比丘”형식으로 寬佐, 祖妙, 祖道, 師訓, 成德, 惟俊, 洪明, 信湖, 寬惠, 祖德, 寬守, 性元, 祖雍, 寬保 등 14인의 법명이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서 당승은 중국승려를 뜻한다. 그렇다면 중국 승려들이 『화엄경소』 간행에 어떤 형식으로든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51) 『松廣寺史料集成』. 海淸堂圓融法性三殿上樑記, “前金城判事 斐能比丘.”

52)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順天, 松廣寺, 1648). “前 金城判事 本寺住持 兼斐能靈駕.”

53) 『曹溪山松廣寺住持系譜』 第7張. “□□裴能 仁祖 二十五年頃.”

54) 卷2: 刊字 弘彦, 卷59: 刻手 弘彦, 卷64: 校正刻比丘弘彦, 卷65: 正刻 弘彦比丘, 卷78: 刻手秩 弘彦, 卷104: 校刻 弘彦, 卷113: 校正刻 弘彦比丘 등.

55) 『雲水壇歌詞』(順天: 松廣寺, 1607). “刻手 弘彦.”

56) 『妙法蓮華經』 권1말(順天: 松廣寺, 1615). “刻秩 弘彦.”

57) 『禪家龜鑑』(順天: 松廣寺, 1618). “刻手秩 弘彦.”

58) 『佛說預修十王生七經』(順天: 松廣寺, 1618). “刀 弘彦.”

59) 『妙法蓮華經』(昆陽: 栖鳳寺, 1639). “刻秩 弘彦.”

3. 분담 간행

송광사가 2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화엄경소』 전권을 간행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번각을 한데다 인근의 사찰과 판각을 분담하였기 때문이었다. 분담판각은 인근 사찰이나 주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찰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송광사에서도 판각을 분담하였는데, 현재 확인되는 사찰은 寶城 開興寺와 昆陽 栖鳳寺(棲鳳寺) 등 두 곳이다. 이중 개흥사는 자신들이 판각한 『화엄경소』 목판 권미에 이 사실을 판각해 놓은 데다 별도의 판에도 참여자를 소개해 놓았다. 이에 비해 곤양 서봉사는 별도의 판에 분담 판각 사실만을 판각해 두었을 뿐이다. 그런데 두 사찰 모두 분담 판각 사실을 남긴 별도의 인본은 배열이나 위치를 알 수 있는 표기가 없다. 그러다보니 후대의 여러 인본들은 이 사찰들의 판각사실을 적합한 위치에 편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전본에는 이 내용이 없거나 있어도 다른 곳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 사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분담하여 판각한 사실을 살피고, 현재 잘못 편성되어 혼란을 주는 이 내용의 올바른 위치를 찾고자 한다.

먼저 권말의 간행기록 중에서 송광사라는 사찰명이 없거나 특이한 사례를 선별해보면 <표 2>와 같다. 이 중에서 권14의 간행기록은 귀진사본을 번각하면서 간행기록까지 그대로 새긴 것이다.⁶⁰⁾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고, 분담판각의 사례에서 발생한 나머지 간행기록들을 대상으로 살핀다.

<표 2> 간행처가 불분명한 사례

구분	편성위치 (권말)	간기	간행 연월	근거
1	14	嘉靖三十六年丁巳七月 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進寺開板	1557.7	목판, 인본(동국대 소장본)
2	22(24) ⁶¹⁾	崇禎七年甲戌四月日從	1634.4	인본(동화사 소장본, ⁶²⁾ 동국대 소장본)
3	33	崇禎七年甲戌二月念五日始役四月念六日終	1634.4	목판, 인본(동국대 소장본)
4	44(47) ⁶³⁾	崇禎七年甲戌七月日 ⁶⁴⁾	1634.7	인본(대흥사 소장본, ⁶⁵⁾ 벽송사 소장본, 동화사 소장본)

60) 권12의 권말간기에도 “崇禎八年乙亥(1635)三月日全羅道順天府曹溪山松廣寺重刊”과 같이 중간본임을 밝혀 놓았음.

61) 이 장은 경문이나 주석이 없는 별개의 판으로 시주질, 연화질 그리고 간행기록만 수록되어 있으며, 동화사 소장본은 권22, 동국대 소장본은 권24의 끝에 편성되어 있음.

62) 동화사 소장본은 “施主 比丘 善裕 … 康熙46年 丁亥(1707)印經.”이라는 후표지 이면의 묵서와 같이 1707년 인본임.

63) 대흥사, 벽송사 소장본은 권44, 동화사 소장본은 권47의 끝에 편성되어 있음.

64) 이 목판은 어미, 권수, 장수표시 등을 볼 때 상하를 바꾸어 판각한 것으로 추정됨. 상하화문어미가 있는 판심에는 “四十二”, “四十四” 등의 장수, 권수표시가 있으나 권수와 장수의 순서가 올바르게 맞지 않다. 아마 폐기된 판을 이 용도로 재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65) 대흥사 소장본은 권69 말미의 묵서 “康熙三十二年 癸酉(1693) 四月日 華四重修印出”과 같이 1693년 인출본임.

3.1 보성 개홍사

『화엄경소』 권33의 마지막 44장 끝에는 “권4-6, 권28-33권은 보성의 개홍사에서 간행하였다.”⁶⁶⁾는 一浩의 기록이 있다. 개홍사에서 간행한 이 9권은 해당 목판도 현전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 당시 일호는 개홍사에서 새긴 마지막 권인 권33의 끝에 이 사실을 새겨 놓았는데, 반엽 6행의 본문과는 달리 8행이다.

그런데 일호가 밝힌 이 내용은 편성위치가 불분명한 <표 2>의 두 번째 사례인 권22(24)에 편성된 “崇禎七年甲戌四月日從”이라는 간행기록의 본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원이 된다. 권22(24)에 편성된 간행기록은 판심에 권수나 장수가 판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22나 권24의 간행기록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러나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원래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곧 이 장의 각자질에는 文彦, 太祥, 敬洽, 明淨 등 19명, 연화질에는 공양주 雪行, 숙두 天擇, 社長 萬眞, 鍊板 思哲, 法淡, 別坐 通海, 助化 一浩, 持殿 性輝, 화주거사 陳應男 兩主⁶⁷⁾ 등이 보인다. 이들 중 文彦,⁶⁸⁾ 雪行과 通海,⁶⁹⁾ 思哲⁷⁰⁾ 등은 지역 내 사찰에 소속되어 불서의 간행업무에 활발하게 참여하던 승려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33 말미의 일호의 간행기록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라도 순천의 조계산 송광사에서 조성하기 시작한 화엄경 80권중에서 4-6권, 28-33권은 보성의 오봉산 개홍사로 옮겨 산인 일호가 간행하다. 조연 만진, 교정 대선사 순옥, 별좌 통해, 지전 성취, 대화주 청신거사 진응남. 승정7년 갑술(1634) 2월 25일 일을 시작하여 4월 26일에 끝을 내다.⁷¹⁾

한편 권22(24)와 권33에 표기된 참여자를 대비하면 <표 3>과 같다. 양측에 보이는 인물들은 역할이나 담당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권22(24)에 편성된 간행기록은 보성 개홍사의 간행본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권22(24)의 끝에 편성된 별판의 간행기록은 보성 개홍사에서 간행한 권4-6이나 권28-33의 마지막 권인 권6 또는 권33의 끝에 편성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간기 “崇禎七年甲戌四月日從” 중의 마지막 자인 “從”은 “終”과

66) 권33 말, “始造華嚴八十卷內, 四卷五卷六卷二十八卷二十九卷三十卷三十一卷三十二卷三十三卷, 移到寶城地五峯山開興寺, 山人一浩刊.”

67) 권33말, “...助緣萬進, 校正大禪師淳玉, 別座通海, 持殿 性暉, 大化主清信居士陣應男.”

68) 文彦은 崇禎 4년(1631)에 전라도 장흥의 天冠寺에서 간행한 『佛說八關齋戒秘密永生淨土心要』, 『念佛作法』, 『廬山優曇和尚勸修淨業語錄』, 『不思議和尚歸寂訣』 등을 판각할 때 참여하였음.

69) 雪行과 通海는 순천 계곡산 定慧寺에서 현종 3년(1662)에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를 간행할 때 공양시주 등으로 참여하였음.

70) 思哲은 開興寺에서 인조 27년(1649)에 『妙法蓮華經』을 간행할 때 鍊板으로 참여하였음.

71) “全羅道順天地, 曹溪山松廣寺, 始造華嚴, 八十卷內, 四卷五卷六卷, 二十八卷二十九卷三十卷三十一卷三十二卷三十三卷, 移到寶城地, 五峯山開興寺, 山人一浩刊. 助緣 萬進, 校正 大禪師淳玉, 別座 通海, 持殿 性暉, 大化主 清信居士 陣應男」崇禎七年甲戌(1634)二月念五日始役四月念六日終.”

유사한 글자이어서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한다.

<표 3> 권22(24)와 권33의 간행기록에 보이는 참여자 대비

권22(24)의 참여자	권33의 참여자	동일인물
供養主 雪行 熟頭 天擇, 三日 社長 萬進 鍊板 思哲, 法淡 別座 通海 助化 一浩 持殿 性輝 化主 居士 陳應男	山人一浩刊 校正大禪師 淳玉 助緣 萬進 別座 通海 持殿 性輝 大化主 清信居士 陳應男	一浩, 萬進, 通海, 性輝(輝), 陳應男

앞에서 살폈듯이 송광사본은 마지막 권120을 가장 빨리 판각하였다. 그런데 간행시기로 보면 보성 개홍사 간행본이 그 다음이다. 그렇다면 당시 각성은 미리 판각을 분담할 것을 계획하고, 간역사업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후 개홍사는 각성의 입적 이전에 『현수제승법수』,⁷²⁾ 『묘법연화경』,⁷³⁾ 『법화영험진』,⁷⁴⁾ 『제반문』,⁷⁵⁾ 『고왕관세음경』⁷⁶⁾ 등을 간행하였는데, 각성의 참여나 송광사 승려들과의 연계성은 보이지 않는다.

3.2 곤양 서봉사

栖鳳寺(棲鳳寺)는 경상도 곤양⁷⁷⁾에 있는 사찰로 개홍사와 함께 『화엄경소』 간행을 분담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표 2>의 네 번째 사례인 대홍사, 벽송사 소장의 『화엄경소』 권44(동화사 소장본은 권47)에 편성된 “대경 43판 1척과 『십지론』 31판 등 75판을 경상도 곤양의 서봉사에서 개간하여 송광사에 옮겨 두었다.”⁷⁸⁾는 별판 한 장의 간행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대경이란 『화엄경』, 일척이란 단면 판각본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 기록은 서봉사가 『화엄경소』 외에도 『십지론』, 곧 『십지경론』의 간행에도 참여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승정 7년(1634)에 송광사에서 간행된 판본에는 서봉사의 간행기록은 없다. 그러나 『십지경론』 전 12권 중 제5권의 간행기록에는 “淨行比丘, 施主 義蜜比丘, 施主 智修比丘, 鍊板

72) 『賢首諸乘法數』(宝城: 開興寺, 1647).

73) 『妙法蓮華經』(寶城: 開興寺, 1649).

74) 『法華靈驗傳』(寶城: 開興寺, 1652).

75) 『諸般文』(宝城: 開興寺, 1652).

76) 『高王觀世音經』([寶城]: 開興寺, 1652).

77)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용산리.

78) “大經四十三板一隻, 又十地論三十一板, 都計七十五板, 慶尙道昆陽郡栖鳳寺開刊, 移來全羅道順天府曹溪山, 留轉于松廣寺. 時崇禎七年甲戌(1634)七月日.”

尙俊比丘, 刻手 太靈比丘, 助緣 玄覺比丘, 勸化主 竺峇比丘”⁷⁹⁾ 등의 참여자 명단이 있다. 이 중에서 상준, 태영, 현각, 축잠 등은 서봉사에서 『화엄경소』를 간행할 때 각각 연판, 刊字, 별좌, 화주로 참여한 승려들이다.⁸⁰⁾ 그러므로 별판 한 장의 간행 기록과 같이 『화엄경소』를 간행할 때 서봉사가 분담 참여한 사실은 간행 참여자의 이름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별판의 기록과 참여자들로 보아 서봉사에서 분담 판각한 『십지경론』은 권5를 중심으로 한 31판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서봉사가 분담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배경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당시 분담한 사찰이 개흥사, 서봉사 등 두 사찰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찰 중에서 확인이 되는 사찰이 두 곳인지도 알기가 어렵다. 서봉사에서 참여한 승려들 중에서 각수 印浩와 공양주 信旭 등은 이후에도 서봉사에 머무르면서 불서의 간행업무에 참여하였다. 그것은 인조 17년(1639)에 『묘법연화경』을 간행할 때 각각 각수, 별좌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⁸¹⁾

한편 서봉사와 각성의 인연은 각성의 입적 직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서봉사가 간행한 불서 중에 각성이 입적 한 해 전인 효종 10년(1659)에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⁸²⁾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⁸³⁾ 『운수단가사』,⁸⁴⁾ 『제반문』⁸⁵⁾ 등을 간행할 때도 각성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판본의 계통

고려 선종 4년(1087)에 송나라에서 판각한 목판이 처음으로 국내에 전입된 이후 국내에서는 독자적으로 정서본을 마련하여 고려 고종 28년(1241)에 경상도 가야산 下鋸寺에서 4권을 간행⁸⁶⁾한 적이 있었으나 고려시대에는 더 이상의 간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세종 6년(1424)에는 일본의 해인사 대장경판의 구청에 그 대안으로 이 목판을 사급하였다.⁸⁷⁾

79) 『十地經論』(順天: 松廣寺, 1635) 明地 3卷之5末.

80) 『화엄경소』 권44말. “信卽戒益 一覺…, 刊字 勝連 太靈 印浩 贊敬, 鍊板 尙俊, 供養主 信旭, 別座 玄覺, 性習…, 化主 竺峇.”

81) 『妙法蓮華經』卷1(昆陽: 栖鳳寺, 1639). “印浩書刊, 刻秩 印浩, 別座 信旭.”

8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昆陽: 栖鳳寺, 1659). “曹溪宗大師 覺性.”

83)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昆陽: 栖鳳寺, 1659). “國名現 大德覺性.”

84) 『雲水壇歌詞』(昆陽: 棲鳳寺, 1659).

85) 『諸般文』(昆陽: 栖鳳寺, 1659) 제71장. “一國大師 覺性.”

86) 이 판본은 “辛丑年(1241)五月 日伽伽山下鋸寺 彫造.”와 같이 고려 고종 28년(1241) 5월에 간행된 것으로 해인사에 목판 57판(국보 제206-18호)이 전하고 있음.

87) 『세종실록』 6년 1월 8일. “上遣護軍尹仁甫, 諭圭籌等, 賜密教大藏經板, 注華嚴經板, 大藏經一部.”

『세종실록』 6년 12월 17일. “遂與圭籌等, 五月二十一日到京, 館於城北深修菴, 輸藏經與木板, 置于相國寺.” 한편 이 목판은 足利義滿(아시카가요시미츠, 1358-1408)의 원찰인 교토의 상국사에 수장되었다가 화재로 소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相國寺史料編年集成』(同志社大學 歴史資料館館報 第15号, p.11, 21), (『滿濟准后日記』 同日條, “十四日 晴. 末初刻, 相國寺ノ塔頭, 乾德院燒失. 其余炎ニ常德院, 雲頂院, 鹿苑, 并寺內七堂以下, 方丈, 文庫, 鐘樓, 一字モ不殘, 悉燒失.” 『扶桑五山記』 93. 玉崖和上, “同年十月, 三日卯刻, 敵軍攻寺, 從庫堂出火,

이 일이 있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엄경소』는 국내에서 간행되는데, 그 사실은 강석덕의 “화엄경 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간행방식은 권자본 판식의 송본을 거의 그대로 번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열람이나 이용에 불편하였던지 권축장이 아닌 포배장으로 장책하였음이 전본을 통해 확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책도 문자가 있는 부분이 접히기도 하는 등 불편하자 판심을 새로 만들어 번각하게 된다. 이러한 판식의 초기본이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전적 중에서 6권3책이 발견되었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판본이 더러 보였지만 산재하는데다 간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미상의 판본으로 알려져 왔다. 다행히 백양사 복장본은 다수의 권이 발견되었으므로 유사한 판본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판심을 갖춘 『화엄경소』는 현전 판본으로는 백양사 복장본이 처음이 된다. 이후 이를 번각한 판본인 귀진사본, 용복사본, 송광사본 등이 연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간행된 송광사본은 귀진사본을 번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판심을 갖춘 백양사 복장본은 판본의 계통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송본부터 여러 국내 판본들까지 차례로 살펴 송광사본의 계통을 밝히고자 한다.

4.1 송본

의천이 정원에게 의뢰한 『화엄경소』 목판은 선종 4년(1087) 3월에 徐戡 등 20명이 신주화엄경관 또는 화엄경관을 바쳤다는 기사⁸⁸⁾와 협주화엄경 2,900여 장을 새겨 고려에 보냈다는 蘇軾의 奏議⁸⁹⁾에서 확인된다. 이후 국내에서 수차례의 인출이 있는 듯 인출시기가 다른 인본들이 절첩장이나 포배장으로 전하고 있다. 이후 국내에서는 17세기 중기까지 앞선 판본을 바탕으로 번각하였으므로 이 송본이 국내 간본의 祖本이 되는 셈이다.

한편 고려시기의 인본들이 현재 중국 경매에 거듭 출품되고 있다. 송본에 대한 일반적인 논급은 제법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경매 출품본을 통해 본 중국인들의 견해에 대해서만 살피기로 한다. 근래 출품된 인본은 권1-2와 권37-38의 2첩⁹⁰⁾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인본은 송나라

七堂并東方諸院・鹿苑，一時爲焦土，同四日午刻，西方諸院，始于雲頂，終于大德，皆燬兵矣。）

88) 『高麗史』 세가 권제10, 선종 4년(1087) 3월 갑술. “宋商徐戡等二十人來，獻新註華嚴經板.”

『高麗史節要』 권6, 정묘 4년(1087) 3월. “宋商徐戡等二十人來，獻華嚴經板.”

89) 『東坡奏議』 권6. “論高麗進奉狀”，元祐 4年(1089) 11月 3日，“一. … 徐戡，先受高麗錢物，於杭州，彫造夾注華嚴經，費用浩汗，印板既成，公然於海舶，載去交納，却受本國厚賞，官私，無一人知覺者.”

『東坡奏議』 권8. “乞禁商旅過外國狀”，“元祐 5年 8月 15日 … 去年(元祐4年: 宣宗6년: 1089) 11月23日奏，泉州百姓徐戡 … 爲高麗國，雕造經板，二千九百餘片，公然載往彼國，却受酬答銀三千兩.”

90) 송본 『화엄경소』는 경매 출품본과 공공기관 소장본이 있음.

경매출품본으로는 北京德宝에서 권1-2의 1책(2010.12), 上海國拍에서 권95 일부(2010.12), 北京德宝에서 권37-38의 1책(2011.6), 泰和嘉成에서 권93-94의 1책(2016.6) 등 4권이 있다. 이 중에서 권1-2와 권37-38의 2책은 2019년에 다시 경매에 출품된 것이다. 공공기관 소장본은 중국국가도서관 6권(권71,83,85,94,99,114), 수도도서관 1권(권114), 상해박물관 2권(권54,101), 상해도서관 3권(권13,21,41), 소주박물관 1권(권109) 등이 알려져 있다.

때 轉運司에서 판각되었으므로 전운사라는 기관명을 명칭에 붙이고 있다.⁹¹⁾ 곧 권1-2의 한 첩에 대해 易勝拍賣網에서는 북송 대안 2년(1086) 『兩浙轉運使司刻本 大方廣佛華嚴經』⁹²⁾으로 일컫고 있다. 또한 권37-38의 한 첩에 대해, 藝狐在線(Arfox)에서는 『兩浙轉運司刻 大方廣佛華嚴經疏』,⁹³⁾ 雅昌拍賣에서는 『兩浙轉運司刻本 大方廣佛華嚴經疏』,⁹⁴⁾ 易拍全球에서는 『北宋兩浙轉運使司 大方廣佛華嚴經』 또는 『宋代官刻佛經 宋兩浙轉運司本 大方廣佛華嚴經疏』⁹⁵⁾로 일컫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송본에 대해 중국에서는 “양절전운사사각본”, “양절전운사각”, “양절전운사각본”, “북송양절전운사사”, “송대관각불경 송양절전운사본”과 같이 전운사라는 정부기관을 판각처로 보고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국가도서관 소장의 한 권 중 종이를 붙인 곳에 ‘兩浙轉運司’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兩浙轉運司刻本’이라고 하는 것”⁹⁶⁾이고, “『북경도서관고적선본서목』에도 ‘宋兩浙轉運司本’으로 著錄되어 있다는 것이다.”⁹⁷⁾

그런데 송본에는 간행과 관련된 기록은 보이지 않고, 혹 간행 기록이 있을만한 마지막 120권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국내 간본도 120권 끝에 “杭州錢塘”이나 “嚴明”과 같이 간행처와 각수명이 소개된 판본이 있으나 전운사라는 기관명은 보이지 않는다.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각국사 의천의 주문으로 송나라에서 수입한 목판에 대해 전운사라는 기관명을 冠題로 붙이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宋代 官刻佛經”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양국 간에 이 판본을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권37-38의 한 첩에 사용된 종이에 대해 “닥종이로 보이거나 실은 죽지이며,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실험결과 원나라 때의 종이임이 밝혀졌다.”⁹⁹⁾고 한다. 그런데 국내소장의 권37¹⁰⁰⁾과 대비하

91) 최근 국내의 연구에서도 송본을 “전운사본”, “전운사 목판본”, “전운사 교장본” 등으로 일컫은 사례가 있음(최애리, “신편제종교장총록 수록 교장 현존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0), 116-127).

92) 『易勝拍賣網』(http://www.n21ce.com:8080/live/livepreview_detail.aspx?a=4916&t=1295). 검색일자 2020.10.26.

93) 『藝狐在線』, “北京伍倫2019年春季文物藝術品拍賣會.”(<https://www.artfoxlive.com/product/2733213.html>). 검색일자 2020.10.26.

94) 『雅昌拍賣』, “2019年春季文物藝術品拍賣會.”(<https://auction.artron.net/paimai-art0084590018>). 검색일자 2020.10.26.

95) 『易拍全球』, 2019.12. (https://epailive.com/goods/12728994?buriedPoint=fl_01). 검색일자 2020.10.26.

96) 『雅昌拍賣』, “2019年春季文物藝術品拍賣會.”(<https://auction.artron.net/paimai-art0084590018>), “國圖本其中一卷接紙處, 有‘兩浙轉運司’字樣, 遂定名為兩浙轉運司刻本.” 검색일자 2020.10.26.

『易拍全球』, 2019.12, “國家圖書館亦藏有此經六卷, 其中一卷接紙處有兩浙轉運司字樣, 這當是此經定為兩浙轉運司本的依據.”

首都圖書館歷史文獻中心的 國家珍貴古籍名錄에서는 자관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4에 대해 “宋兩浙轉運司刻本”이라고 하면서 “양절 전운사는 항주에 있었으며, 전운사에서 최초로 이 책을 간인하였다.”(宋兩浙轉運司最早刻印此書, 兩浙轉運司設在杭州)고 함. (<https://www.bjgubao.com/recommend/default/detail?id=164>) 검색일자 2020.10.26.

97) 『易拍全球』, 2019.12. (https://epailive.com/goods/12728994?buriedPoint=fl_01), “檢之《北京圖書館古籍善本書目》, 果然有此經, 著錄為宋兩浙轉運司本, 則此經為宋兩浙轉運司本無疑.” 검색일자 2020.10.26.

9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귀진사본의 권120. “大宋寧海軍杭州錢塘」雕文字嚴明勾當雕此經.”

99) 이 책에 사용된 종이는 “닥종이로 보이거나 실은 죽지이며,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실험결과 원나라 때의 종이임이 밝혀졌다.”(『藝狐在線』, “北京伍倫2019年春季文物藝術品拍賣會”, “錯認為是楮皮紙, 其實是兩張竹紙粘合在一起的, 美國亞利桑那大學加速器質譜實驗室進行碳十四測年, 其結果顯示, 此冊兩浙轉運司刻本《大方廣

면 동일한 판본임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죽지로 인출한 이 인본은 원나라가 고려에 수장되어 있던 목판으로 인출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송본은 송나라의 첫 인본을 시작으로 국내의 한지 인본, 원나라의 죽지 인본 등이 각국에 산전하고 있으므로 세밀한 감정이 필요하다.

4.2 청계사본¹⁰¹⁾

고려 고종 28년(1241) 5월에 국내 정서본으로 간행된 가야산 하거사본은 여래출현품만 별도로 57권에 새긴 것¹⁰²⁾으로 전권을 간행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하거사본 이외의 고려본은 발견되지 않고 문헌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은 없다. 그러므로 왕자 의천의 주도로 전래된 수입목판이 있던 고려시대에는 국내에서 간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화엄경소』는 세종 6년(1424)에 수입목판을 일본에 사급한 뒤에야 조선에서 처음으로 판각되는데, 바로 이 청계사본이다.¹⁰³⁾ 일찍이 지관 스님 역시 청계사본을 “조선 불교에 있어 제1회의 화엄경판 조성”¹⁰⁴⁾이라고 하였다.

현재 국내외에 전하는 송본은 절첩본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장책할 때 앞뒤 장을 이어 붙이면서 판수제, 권수, 장수 등이 가려져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 열람과 이용에서도 절첩장의 한계는 있다. 그래서인지 포배장으로 장책한 판본이 여럿 전한다. 이러한 종류로는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의 권93의 1책,¹⁰⁵⁾ 아단문고 소장의 권28-30, 권100-102의 6권2책,¹⁰⁶⁾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

佛華嚴經疏》所用紙張的年代爲元代.”)고 한다.

100)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본.

101) 오용섭, “조선시대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 『서지학연구』 제76집(2018. 12)에서 청계사본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여기에서 보완하였음.

청계사본은 姜碩德의 “華嚴經跋”(『東文選』 卷103)에서 일컬은 판본을 말한다. 곧 강석덕의 글에 따르면,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廣平大君 李璵(1425~1444)의 정부인인 평산 신씨 永嘉府夫人의 조부인 신희창(?~1440)과 그의 아들 自謙이 1440년 8월까지 완성한 245판과 三韓國夫人 安씨(?~1444)가 주도하여 1444년 11월 이전에 완성한 1,225판 등 모두 1,470판을 일컫는다. 목판 수는 송본 2,900여 판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데, 이는 송본을 양면 또는 장판에 새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慶貞公主(?~1455), 孝寧大君(1396~1486)과 부인 鄭씨가 성의를 다하고, 成達生(1376~1444)이 찬조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함으로써 이 사업을 마치게 되었다고 한다. 완성 이후 이 목판은 청계사의 雜華殿에 수장하였으므로 그 청계사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판본은 왕실의 지원으로 완성된 데다 판각이 정밀하고 난외에 시주자 등이 없는 등 일반 사찰본과는 품격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왕실본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하므로 향후 왕실주도의 간행사실이 판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왕실본으로 고쳐 부를 필요가 있다.

102) 박재현, “대방광불화엄경해제”, “如來出現品에 대한 것이므로 大方廣佛華嚴經疏如來出現品이라고 해야 더욱 정확하다.”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판집』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431-432.

103) 『화엄경소』에 대한 국내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120권이나 되는 거질의 불서를 간행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청계사본이 1차 중단되면서 20년이나 소요된 사실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세종은 동왕 6년(1424)에 일본에게 송판 『화엄경소』를 賜給하였으므로 국내에는 『화엄경소』 목판이 없고, 이용자의 요구에도 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청계사본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104) 이지관, “한국불교에 있어 화엄경의 위치 - 각관유통을 중심으로 -”, 『불교학보』 제20집(1983. 9), 21-22.

105) 紺紙로 된 표지에 개법장진언 아래 『大方廣佛華嚴經』이라는 제명과 卷第九十三이라는 권수가 金泥로 쓰여

불 복장전적 중의 권97의 1책,¹⁰⁷⁾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권91-92의 1책¹⁰⁸⁾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판본은 포배장으로 장책하기 위해 인출과정에서부터 미리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20행 1장을 제1-10행과 제11-20행 등 두 장으로 나누어 인출하였다. 그리고 각 장을 5행씩 나누어 반접하여 내칠하고, 책등을 천으로 풀로 감싼 뒤 앞뒤 표지를 천에다 붙여 포배장으로 장책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장책은 20행 1장을 4행씩 5폭으로 절첩하여 장책한 대부분의 송본과는 외형상으로도 완전히 구분된다.

한편 여말선초에 인출된 국내 판본으로 소개된¹⁰⁹⁾ 수덕사 塑造如來坐像의 복장본인 권79-81, 권91-93 등 6권2책,¹¹⁰⁾ 곧 청계사본의 表題는 『嚴疏』, 권수는 표제에 이어 “九十一之三”과 같이 묵서되어 있다. 판수제는 『注華嚴經』, 『注花卍經』, 『注華嚴』, 『花卍經』, 『華卍經』, 『注經』 등 다양하다. 이 복장본은 20행 1장을 제1-10행과 제11-20행 등 두 장으로 나누어 인출한 뒤 각각 5행으로 나누어 반접하고 내칠하였다. 그리고 책등에는 붉은 색 계통의 천을 풀로 붙인 뒤 앞뒤에 갈색 계통의 종이 표지로 붙인 포배장이다. 이러한 장정은 앞에 소개한 송본 포배장 방식과 동일하다.

그러나 판본에서는 상하 변란에서 송본과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곧 송본은 좌우쌍변(혹 단변) 형식이나 상하 변란의 굵기가 계선과 같이 가늘다. 이에 비해 청계사본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상하 변란이 굵어서 한 눈에도 송본과는 구분이 된다. 그리고 판본에서 변각의 흔적이 보이고, 지질 등은 조선본의 특징을 보여준다.

세종 26년(1444)에 완성된 이 목판은 판각실무를 주관하던 각돈이 주지¹¹¹⁾로 있던 청계사 雜華殿에 수장되었다. 이후 청계사는 광해군 14년(1622)에 “나라에서 청계사에 재를 베풀었다.”¹¹²⁾거나 “청계사는 폐세자가 점유하고 있었다.”¹¹³⁾고 하므로 목판은 광해군 때까지는 보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언제 消失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한편 수덕사 소조삼존불상은 연륜연대 분석결과 1524-1554년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¹¹⁴⁾

저 있다. 판수제는 注花嚴, 注經 등인데 注花嚴이 대부분이며, 장책형식은 내칠을 한 뒤 책등에는 갈색 계통의 천으로 감싸 붙이고, 앞뒤 표지는 천에다 붙인 포배장이다.

106) 보물 제892호이며, 개법장진언 아래 『大方廣佛華嚴經』이라는 제명과 “卷 第一百之二”라는 권수 표시가 있으며, 장책과 표기방식은 연세대 소장본과 동일함.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보물 제892호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8~30, 권100~102. “원래의 나무판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한판에 20줄의 글자를 새겼는데, 10줄씩 나누어 닥종이에 찍어 냈다.” 검색일자 2020년 10월 28일.

아단문고 자료해제.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8-30(32.5×18.3cm)과 권100-102(34.7×18.5cm)”과 같이 두 책은 책의 크기가 다르다. (<http://www.adanmungo.org/view.php?idx=919>) 검색일자 2020년 10월 28일.

107) 보물 제959호.

108) 소장품번호: 구 5640. 근래에 배접되고, 선장으로 개장되었으나 5행씩 반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 장정은 포배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검색일자 2020년 11월 7일.

109) 정각, “수덕사 소조 여래좌상 복장 전적류 고찰,” 『정토학연구』 제30권(2018), 170.

110) “수덕사 불상서 고려가 직접 제작한 ‘보물급 불경’ 나왔다,” 『경향신문』(2018.10.31.)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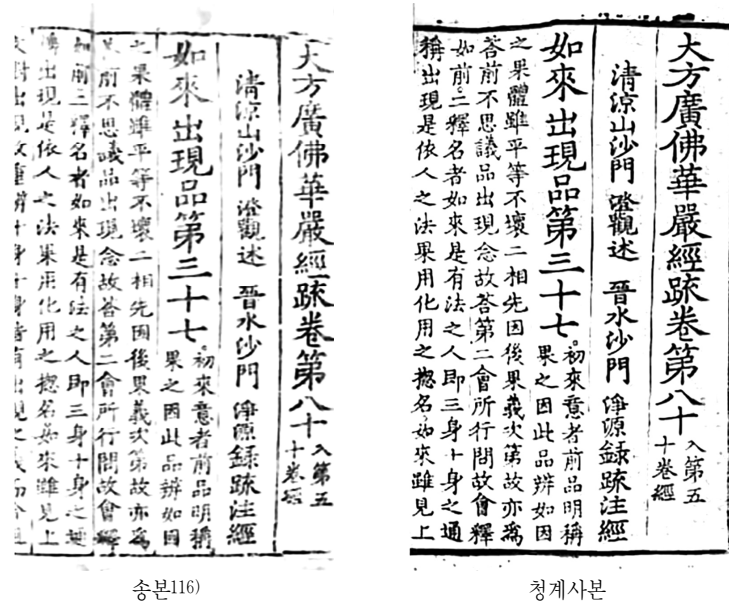
111) 『단종실록』 1년 6월 24일 기유, “囚僧覺頓于獄… 嘗爲清溪寺菴主, 能董治作役.”

112) 孤閑大師行狀(『大覺登階集』 권2). “萬曆壬戌(1622), 師年六十餘, 國家設齋於清溪寺, 請師爲證, 授以金襴袈裟.”

113) 趙樸 撰, 『清溪寺事蹟記碑』(1689). “光海時, 清溪寺, 爲廢世子, 所占.”

114) 김요정, “수덕사 소조삼존불상의 수종과 연륜연대 분석,” 『덕숭산 수덕사 본말사의 성문화재: 대한불교조계종

인본은 그 이전에 인출되어 복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권93의 경우, 송본은 권미제가 끝난 뒤에 詳校, 重校한 인물 정보가 있으나 청계사본에는 이 사항이 삭제되어 있고, 권미제도 송본보다 한 행 앞에 있다. 권91 역시 송본과는 달리 상교한 인물 정보만이 수록되어 있다.¹¹⁵⁾ 이렇게 원 교정자 정보를 삭제 또는 일부 삭제하고 해당 권을 마무리 지은 이유는 한 장의 분량이라도 절약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다.



<그림 1> 『화엄경소』 권80의 대비

4.3 백양사 복장본

장성의 백양사 복장본은 청계사본이나 귀진사본 등과는 다른 독자적인 판본이다. 간행 시기는 판식으로 보아 <그림 2>에서 보듯이 가운데에 속하는 특징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전본이 권7-8, 권73-74, 권79-80 등 6권3책에 불과한데다 이 권에서는 간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나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나마 권8의 제17장 왼쪽 난외 아래에는 月非, 권73의 제1장 오른쪽 난외 아래에는 淡岡이라는 인명이 양각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간행사실을 추적해 본다.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학술대회』(2018.11.3.), 53-63.

115) 정각, “수덕사 소조 여래좌상 복장 전적류 고찰,” 『정토학연구』 제30권(2018), 171.

116) 송본은 개인소장본.



<그림 2> 청계사본, 백양사 복장본, 송광사본의 권80의 권수제면 대비

두 사람 중에서 월비는 찾지 못하였으나 담경은 전라도 高山의 佛明山 花岩寺에서 1477년에 『묘법연화경』을 간행할 때 공양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¹¹⁷⁾ 그런데 이 1477년 간본은 성달생(1376~1444)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으나 실은 정통 8년(1443)에 간행된 화암사본의 번각본이다. 그러나 화암사본의 발원자와 참여자들 중에는 담경은 보이지 않는다.¹¹⁸⁾ 그렇다면 담경은 1477년에 간행할 때 새롭게 참여한 인물임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백양사 복장본은 담경의 활동 시기나 지역, 담경이라는 법명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 판본의 서지적인 특징 그리고 佛像이 선조 40년(1607)에 제작¹¹⁹⁾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15세기 후기에 전라도 고산의 화암사나 인근의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백양사 복장본의 특징은 판심을 새로 만들어 넣었고, 한 장의 행자수도 반엽 6행15자 형식으로 기존 판본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 살핀 송본, 청계사본, 백양사 복장본 그리고 송광사본의 서지적 특징을 대비하면 <표 4>와 같다.¹²⁰⁾ <표 4>는 송본 이후 국내 판본의 특징과 변형을 잘 보여준다. 곧 송본은 판심이 없는 20행15자의 전엽 형식으로 절첩장과 포배장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들은 대개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내외에 비지정 문화재도 제법 전한다. 백양사 복장본은 판심은 새로 만들었으나 문자부분은 이전 판본을 그대로 새김으로써 새로운 번각 기법을 보여준다. 그런데 백양사 복장본은 인출 흔적으로 보아 목판 1면에 두 장 정도가 판각된 長板이었음을 알 수 있다.

117) 『妙法蓮華經』 발문(高山: 花岩寺, 1477), “歲在戊申(1428)丁母喪居廬己酉(1429)春道人海云來訪請寫楞嚴刊梓壽傳廣行法施 … 成化十三年丁酉(1477)二月日崇祿大夫判中樞院事昌寧成達生謹跋.”, “供養主 淡岡, 大化主 自云.”

118) 月菴은 1443년과 1477년 판본의 참여자명단에 모두 있음.

119)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보물 제2066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07년 조선 후기 玄眞 등 3명의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 검색일자 2020년 10월 24일.

120) 송광사본과 [1564년] 간행의 귀진사본 그리고 [1631년] 간행의 용복사본은 모두 판심이 있는 판본이나 어느 판본이던 광각, 어미, 흑구 등이 일정하지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송광사본만을 대상으로 대비하였음.

이렇게 백양사 복장본을 보면, 번각은 하되 열람과 이용의 편의를 위해 판심을 갖춘 판식으로 개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장책형식도 이전의 절첩장과 포배장에서 선장으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이 백양사복장본이 처음으로 판심을 만들어 간행된 판본인지 아니면 다른 판본을 번각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현재로서는 이 시기에 간행된 다른 판본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백양사 복장본이 판심을 갖추어 번각한 최초의 판본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후 황해도 서흥의 귀진사에서는 이 판본을 교정¹²¹⁾을 거쳐 번각하였고, 송광사에서도 귀진사본을 바탕으로 번각하였던 것이다.

<표 4> 송본, 청계사본, 백양사 복장본, 송광사본의 서지적 특징대비

구분	송본	청계사본	백양사 복장본	송광사본
완간시기	[1086-7년]	[1440-1444년]	[15세기 후기]	1635년
광곽	좌우쌍변(혹 단변) ¹²²⁾	좌우쌍변 ¹²³⁾	사주단변	사주쌍변 혹 단변
판심유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유	유
어미	해당없음	해당없음	내향혹어미	내향혹어미, 화문어미 혼재
혹구유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무	상하혹구, 무혹구 혼재
판수제	注華嚴經, 玄譚, 注花卍經, 注華嚴, 花卍經, 華卍經, 注經 등	좌동	해당없음	해당없음
계선	유	유	유	유
행자수	전엽 20행15자 (4행씩 절첩)	전엽 20행15자 (5행씩 절첩)	반엽 6행15자	반엽 6행15자
시주자	무	전본에는 없음	난외	권말, 난외
장책형식	절첩장, 포배장	포배장	선장	선장

4.4 별본

현재 국내에 산재하는 『화엄경소』 인본들 중에 별본으로 보이는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 숙종 12년 (1686) 5월에 간행된 것으로 보았던 靈覺寺本과 雲浮寺本은 송광사본을 인출하면서 남긴 별도의 인출기록을 독자적인 판본으로 오해한 것임이 밝혀졌다.¹²⁴⁾ 그러나 여전히 별본으로 추정¹²⁵⁾되는

121) 백양사 복장본의 권8 마지막장인 42장 좌면 제1행의 “爲彼普救諸衆生”은 귀진사본에서는 “大光普救諸衆生”으로 교정되어 있음.

122) 국내전본은 특히 오른쪽 변란형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장책되어 있으나 여러 인본들을 보면 오른쪽 첫 행의 가로 폭이 다른 행보다 넓다. 첫 행의 쌍변 사이에 권수제, 권수, 장수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마지막 장의 계선은 대개 문자가 있는 행까지만 보인다.

123) 매장의 첫 행은 판수제, 권수, 장수 등을 오른쪽 쌍변 가운데에 넣은 형식의 쌍변임이 확인된다. 이에 비해 왼쪽 변란은 쌍변, 단변이 혼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출과정에서의 차이로 보인다.

124) 오용섭, “조선시대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 『서지학연구』 제76집(2018. 12), 151-153.

판본이 있으므로 그 중에서 3종만을 살핀다.

첫째, 변상도가 있는 옛 김민영 소장¹²⁶⁾의 권19-21의 한 책은 여러 측면에서 고찰의 대상이다. 이 판본은 권19의 말미에 40여 명의 시주질이 있고, 권20의 제1장에도 시주자로 보이는 인명이 있는 등 사찰본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권19는 다른 판본들은 42장으로 끝이 나는데 비해 이 판본은 43장을 따로 만들어 시주질을 추보해 놓았다. 또한 권20의 제1장 판심제는 『注華嚴』으로 귀진사본의 『華嚴』, 용복사본의 『華嚴』, 송광사본의 『華嚴』과는 다르다. 더욱이 다른 판본과는 구분되는 변상도가 2장이 있는 등 지금까지 소개한 판본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백양사 복장본과의 비교가 필요하나 비교대상의 동일한 권이 없으므로 두 판본간의 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 백양사 복장본의 판심제는 권7-8은 『華嚴』이고, 권73-74, 권79-80은 『注華嚴』이다. 권수는 다르지만 『注華嚴』이라는 판심제 그리고 전반적인 판식은 백양사 복장본과 흡사하다. 그리고 변상도 2장은 이 『화엄경소』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화엄경』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더 많은 동일한 판본이 발견되기를 기대해본다.

둘째, 1943년에 등록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화엄경소』 권119-120의 한 책¹²⁷⁾은 권120의 마지막 제32장 우면에는 권미제에 이어 상교, 중교자 그리고 원 간행지인 杭州錢塘과 각수 嚴明 등의 표기¹²⁸⁾가 있다. 두 권 모두 판심제는 『華嚴』이다. 그런데 권120의 제16, 29장을 보면, 이 판본은 한 목판에 2장 정도가 판각된 長板으로 인출한 흔적이 보인다. 또 광곽이 사주단변으로 통일되어 있고, 특히 아래 어미에 각수와 관련된 문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곳이 제법 있다. 이러한 점 모두 백양사 복장본과 동일하다. 그리고 원 판각지와 각수표기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뿐 아니라 귀진사본 권120의 마지막 제32장 좌면에도 있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제32장 좌면은 계선만 있는데 비해 귀진사본은 普愚를 비롯하여 참여자 10명과 간행사실이 소개되어 있다.

국내 사찰본은 후대본에서 당시 참여하거나 시주한 인물들의 인명을 새롭게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시주자가 표기되지 않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는 달리 참여자와 시주자가 표기된 귀진사본이 후대본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위에 든 여러 사실로 볼 때 백양사 복장본과 동일한 판본이거나 같은 계통으로 생각된다.

셋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권76-78의 한 책은 “共四十”과 같이 앞표지에 전체 책수가 묵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권이 모두 간행된 판본이다. 그런데 권78의 마지막 장에는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과 실무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華嚴宗中德前伽耶寺住持法達”와 “刻字 守衍”이 보이는데 이들은 귀진사본의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당시 법당은 간행 도중에 귀진사 持任을 맡았고, 수련은 각수로서의 참여 횟수가 많은 무리중의 한 사람이었다. 비록 국내에 전하는 귀진사본 중에서도

125) 김단일, “17세기 조선의 대방광불화엄경소 간행과 승려문과의 상관성,”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32-34.

126)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불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스님의 일상』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66-67.

127) 정구기호(古朝21).

128) “大宋寧海軍杭州錢塘」雕文字嚴明勾當雕此經.”

이 권수는 희귀하여 독자적인 판본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귀진사본임이 틀림이 없다.

이외에도 국내 전본 중에는 대비해 볼 수 있는 권이 없어 별판으로 보이는 인본이 여럿 있다. 이들 중에는 간행기록이나 간행과 관련된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 사찰에서 필요로 하거나 대중적인 불서는 간행할 수 있지만 120권이나 되는 불서를 간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전본이나 목판으로 볼 때, 『화엄경소』 판본은 송본을 번각한 청계사본, 백양사 복장본, 귀진사본, 용복사본, 송광사본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청계사본과 백양사 복장본이 더 발견되거나 새로운 판본이 공개된다면 『화엄경소』 판본의 계통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5. 결 언

송광사에서는 약 2년간 집중된 판각작업으로 인조 13년(1635) 4월에 『십지경론』과 함께 『화엄경소』를 간행하게 된다. 당시 이 간역의 주도자는 각성이었고,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간행주체는 송광사였지만 인근의 보성의 개흥사, 곤양의 서봉사 등에서도 판각을 분담하여 참여하였다. 그제야 북부지역의 귀진사본, 중부지역의 용복사본에 이어 남부지역의 송광사에서도 『화엄경소』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남부지역의 사찰에 이 인본이 많이 소장되어 있고, 또 숙종 12년(1686) 5월에 경상도의 운부사, 영각사에서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송광사본은 남부지역의 『화엄경소』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더욱이 목판은 간행이후 보존관리가 잘된 탓에 대체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 보물로 지정¹²⁹⁾됨으로써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물론 근 8년에 걸쳐 간행된 귀진사본을 단기간에 번각한 탓에 간기나 시주질을 그대로 판각하거나 각 권별 판식이 일정하지 않다는 한계가 없지는 않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행의 책임자는 20대 말기부터 교정자이자 각수로서 불서의 간행에 참여하였던 각성이었다. 그는 『화엄경소』의 판각도중이나 이후에도 인근 사찰의 불서간행에 계속 참여하였다. 이에 비해熙玉은 『화엄경소』가 완성되기 전인 인조 12년(1634) 12월 이전에 입적하였기 때문에 큰 역할은 하지 못하였다. 처음 금성판사를 맡았던 裒能은 이 일을 완수한 뒤에 송광사 주지가 되었다. 실무자 중에는 교정과 각수 역할을 모두 수행한 弘彦과 화주 天沽(天浩)가 돋보였다. 그 외에도 창산군 성발, 강태수, 최기남 등 시주자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완수될 수 있었다.

둘째, 거질의 사찰본이 대개 그러하듯 간행방식은 인근 사찰과의 분담 간행이었다. 마침 이 일의 주도자인 각성은 20대 후기부터 능인암에서 판각하여 하동 쌍계사로 옮기는 방식으로 불서를 간행한

129) 보물 제1909호,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송광사에서 『화엄경소』를 간행할 때도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분담에 참여한 사찰은 개흥사, 서봉사로 이들 사찰이 판각한 분량도 확인이 된다. 또한 전본 중 권22 또는 권24에 편성된 간행기록은 개흥사의 판각에 대한 내용이고, 서봉사는 『화엄경소』 뿐 아니라 『십지경론』 제5권을 판각한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송광사본은 귀진사본을 번각하였지만 전엽 형식의 송본이나 청계사본과는 달리 판심을 새롭게 만든 판본, 곧 백양사 복장본의 계통이다. 곧 판식으로 볼 때, 송본은 청계사본에서 그 계통이 일단 완료되고, 이후 판심을 갖춘 백양사 복장본을 이어 귀진사본, 용복사본, 송광사본이 그 계통을 이은 것이다. 아울러 판심을 새로 만든 『화엄경소』를 통해 본 번각은 그 방식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판심을 새로 만든 판식의 변화는 당연히 장책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었다. 곧 송본은 절첩장과 포배장, 청계사본은 포배장이었으나 판심을 갖춘 백양사 복장본 이후 모두 선장으로 개량된 것이다. 이렇게 장정방식은 판식의 형태와 함께 하는데, 『화엄경소』 판본은 고려에서 조선에 걸쳐 장책방식이 개량된 이유와 현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다섯째, 대각국사 의천의 주문으로 전입된 송본은 간행사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일부 국내판본 중에는 마지막 권120 끝에 “杭州錢塘”, “嚴明” 등 간행지와 각수명의 표기만 확인이 된다. 이에 대해 현재 중국에서는 접지부분에 “兩浙轉運司”라는 문자가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전운사라는 기관명을 冠題하거나 “宋代 官刻佛經”으로 일컫기까지 한다. 양국 간에 이 판본을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및 자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세종실록』.

『단종실록』.

『동문선』(권103).

『東坡奏議』(권6, 8).

『대방광불화엄경소』(송본, 청계사본, 백양사 복장본, 귀진사본, 용복사본, 송광사본).

『大覺登階集』.

『曹溪山松廣寺住持系譜』.

『松廣寺史料集成』.

『浮休堂大師集』.

『白軒先生集』.

『霽湖集』.

『瑞興誌』.

『輿地圖書』 下.

『한국의 사찰문화재: 4, 9』 (2015, 2017).

[단행본]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불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스님의 일상』.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판집』.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정 각. 『원각사의 불교문헌』.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유산아카이브사업단, 2017.

천혜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서울: 범우, 2012.

[논문]

강현찬. “조선 후기 『화엄경소초』의 판각과 화엄학의 성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5.

김단일. “17세기 조선의 대방광불화엄경소 간행과 승려문과의 상관성.”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김지완, 남권희. “17세기 태인 용장사 간행 불서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제71집(2017. 9). 253-296.

남권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초조대장경과 대방광불화엄경소.” 『한국학논집』 제37집(2008). 35-63.

노기춘. “순천 송광사 개관불사에 관한 연구(Ⅱ) - 임진왜란 유간기 불서를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제26집(2003). 318-320.

문명대. “벽암각성의 조형 활동과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상과 그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 45호(2015). 13-33.

문상련(정각). “수덕사 소조 여래좌상 복장 전적류 고찰.” 『정토학연구』 제30권(2018). 161-198.

서수정. “새로 발견한 벽암 각성의 禪源圖中決疑 간행 배경과 그 내용.” 『불교학연구』 제55호(2018. 6). 187-218.

오용섭. “11-12세기 교장류 불서의 한중일 교류.” 『석당논총』 58권(2014). 73-106.

오용섭. “교장의 간행방식과 망실.” 『서지학연구』 54집(2013. 6). 137-165.

오용섭. “조선시대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 『서지학연구』 76집(2018. 12). 135-158.

오용섭. “혜순이 간행한 용복사 불서.” 『서지학연구』 63집(2015. 9). 119-148.

- 유승주. “남한산성의 행궁·객관·사찰건립고.” 『한국사연구』 120호(2003). 243-270.
- 이지관. “한국불교에 있어 화엄경의 위치 - 각관유통을 중심으로 -.” 『불교학보』 제20집(1983. 9). 26-30.
- 전영준. “벽암 각성의 남한산성 축성과 사원증창.” 『한국인물사연구』 제12호(2009). 231-258.
- 최애리. “신편제종교장총록 수록 교장 현존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0.

[전자정보원]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 『불고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kabc.dongguk.edu/Home/Search>>.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직지정보박물관』 <<http://www.jikjisa.or.kr>>.
-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한국역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易勝拍賣網』 <http://www.n21ce.com:8080/live/livepreview_detail.aspx?a=4916&t=1295>.
- 『藝狐在線』 <<https://www.artfoxlive.com/product/2733213.html>>.
- 『雅昌拍賣』 <<https://auction.artron.net/paimai-art0084590018>>.
- 『易拍全球』 <https://epailive.com/goods/12728994?buriedPoint=fl_01>.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Ae-Lee. 2020. *Research on existing Gyojang recorded in Sinpyon-jejong-gyojang-chonglok*.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 Jeon, Young-Joon. 2009. “The Study on Gakseong (Byeokam)’s Building of Namhansanseong Fortress and Construction of Temple.” *The Research Center for Korean Historical Figures*, 12: 231-258.
- Kang, Hyun-Chan. 2015. *Engraving the The Avatamska Sutra-so-cho and prevalence of Hua-yen doctrine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Master’s degree thesis.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Korean Buddhism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 Kim, Dan-Il. 2019. *Correlations between Publication of Daebanggwangbul-hwaomgyeongso and the Sects of Monks in the 17th Century of the Joseon Dynasty*. Master's degree thesis. Major in Diplomatics and Bibliography,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Korean Studies.
- Kim, Ji-Wan, & Nam, Kwon-Hee. 2017. "A Bibliographical Analysis of Buddhist Books Published by Yongjangsa, Taein in 17th Centur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1: 253-296.
- Lee, Ji-Kwan. 1983. "Position of the Avatamsaka: sutra in Korean Buddhism." *BUL GYO HAK BO*, 20: 26-30.
- Moon, Sang-leun. 2018. "A Study on the Relics and Votive Objects Found in the Seated Clay Buddha of Sudeok Buddhist Temple." *Journal of The Pure Land Buddhism Studies*, 30: 161-198.
- Mun, Myeong-dae. 2015. "A Study on Byeokam Gakseong's Art Activities, the Amitabha Triad Statue in the Main Hall of the Sinheung-sa Temple, and Contents Stored inside the Body." *THE MISULSA (The Art History Journal)*, 45: 13-33.
- Nam, Kwon-Heui. 2008. "First Tripitaka Koreana and Hwaumkyungso of Keimyung University Dongsan Library Collection." *Keimyung Korean Studies Journal*, 37: 35-63.
- No, Gi-Chun. 2003. "A Study on the Woodblock Engraving Works of Songkwang Temple: Focusing at the Imprints: Contained Scriptures Printed Before the 1592 Imjin Japanese Invasion of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26: 318-320.
- Oh, Yong-seob. 2013. "A Study on Missing and Publication System of Gyo-jang."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4: 137-165.
- Oh, Yong-seob. 2014. "A Study on Exchange of Buddhist literatur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11th and 12th Century." *Journal of Seokdang Academy*, 58: 73-106.
- Oh, Yong-seob. 2015. "A Study on Buddhist Books Pub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Buddhist Monk Hyesun at Yongboksa Temple."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3: 119-148.
- Oh, Yong-seob. 2018. "A Bibliographical Study on Daebanggwangbul-Hwaomgyeongso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6: 135-158.
- Riw, Seung-Joo. 2003. "Review of the Temporary Palace, Hostel for Foreign Envoys(客館) and Temples situated in the Namhan Fortress." *The Association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120: 243-270.
- Seo, Su-jung. 2018. "On the Background of Publication and the Original Texts of The Newly Found Byeokam Gakseong's Seonwon dojung gyeorui."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55: 187-218.

